



자연을 사랑한, 빛의 화가 클로드 모네

박 희 숙 (서양화가)
bluep60@hanmail.net

화가이자 시인. 8회에 걸친 개인전을 열었고 '그림은 욕망을 숨기지 않는다'의 저자. 미술학도를 가르친 대학 강사에, 다수의 그룹전과 공모전에서 입상한 바 있다. 화가이자 시인인 그가 보는 환경은 "타인을 위한 배려"라고 한다. 환경과 자연을 사랑하는 박희숙 화가가 들려주는 문화이야기를 소개한다.

인상파 화가 클로드 모네의 작품을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볼 수 있다.(6월~9월) 이번 전시회에서 모네 예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수련 연작을 비롯해 60여점이 전시가 되고 있다.

모네는 하늘과 눈과 물에 비친 구름을 그린 화가로서 모노크롬에 가까운 흰색을 사용한 최초의 화가이다. 모네는 초기 인물화에서 벗어나 점점 인상파적 특징을 가지고 자연을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작품의 경향이 서정적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모네는 자연을 자신의 예술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모네는 평생 물을 쫓아 그림을 그

려 물의 화가로 알려져 있다. 물의 풍경은 모네의 작품 세계에 중요한 소재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모네가 지베르니 정원 연못에 피어있는 수련을 그린 작품이 중심이다.

모네는 말년에 파리 근교 지베르니에 집을 짓는다. 모네는 잡풀만 무성한 지베르니를 자신의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전문지식을 동원해 갖가지 꽃이 피는 풍성한 정원으로 꾸몄다. 또 지베르니 정원에 연못을 만들어 수련을 띄웠다. 그는 연못과 수련을 관리하는 사람을 고용할 정도로 연못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1895년 모네는 일본 목판화에서 영

감을 얻어 연못에 일본풍의 다리를 지었고 그곳을 명상의 장소로 삼고 그 이듬해에 이 다리가 보이는 수련 풍경을 제작하였다.

정원 연못의 일본식 다리는 늘어진 등나무 가지와 함께 모네의 마지막 30년간 작품의 중요한 모티브가 된다.

모네의 수련 연작은 처음에는 자연주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했다. 넓은 범위를 그린 풍경화에서 일본풍의 다리가 있는 풍경화 그리고 연못의 일부를 그린 풍경화로 그리고 연못에 떠 있는 꽃으로 시선을 옮겨 풍경을 묘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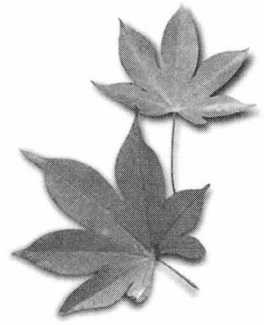
수련 연작은 수평선도 하늘도 배경도 없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것은 물가에 반사되는 소재다. 모네는 반사되는 대상을 더 강렬하게 부각시켰다

〈수련〉 이 작품은 물과 빛 그리고 수면 위에 떠 있는 수련을 표현했다.



〈수련〉 1914~1917년, 캔버스에 유채, 150* 200, 파리 마르모땡 미술관 소장

이 작품은 19세기 유럽에서 유행하던 토속적이고 사실적인 스타일의 풍경화에서 벗어나 모네 스타일의 풍경화의 특징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모네는 이 작품에서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원시적인 형태의 자연을 표현하는 데 주력했지만 그는 인간의 본질인 역동성과 생명력 그리고 움직임을 자연에 부여해 새로운 형태의 풍경화를 만들어 냈다.

〈수련〉은 현실세계에서 벗어나 시간을 초월한 자연을 연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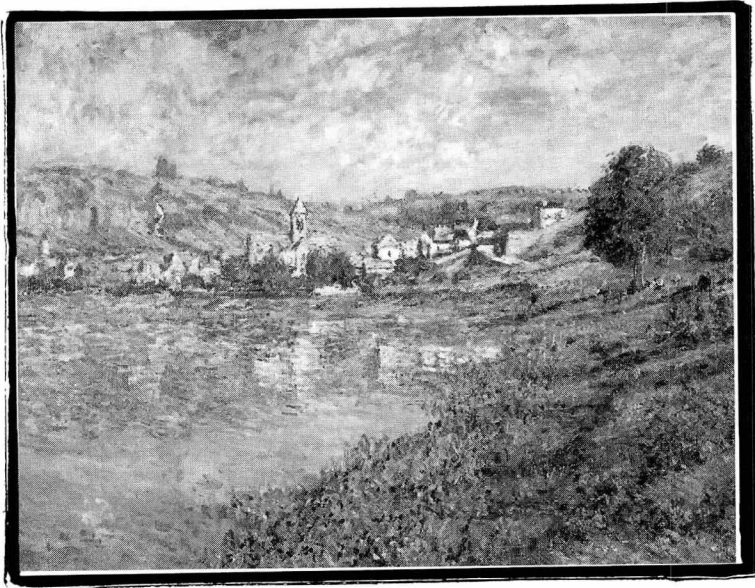
모네의 예술인생 중에서 가장 많은 성과가 나타난 수련 연작은 인상파의 틀을 넘어서 20세기 추상미술에 영향을 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1879년에서 1880년 초 센 강 오른쪽에 있는 베테이유 마을로 이사한 모네는 센 강의 겨울을 그린 ‘부빙 시리즈’를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 ‘부빙 시리즈’에서 깨진 얼음덩어리들은 모네의 삶의 전환점을 상징한다. 모네는 재정적으로나 예술가로서 어려웠던 시기에 베테이유에서 희망을 찾았다.

베테이유에서 모네의 유일한 모델이자 사랑하는 아내 카미유가 32살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다.

아내의 죽음에 절망한 그는 혹독한 겨울을 그리지만 어느 날 겨울 한가운데서 따사롭게 비치는 햇살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새롭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바뀌는 하늘에서 모티브를 찾아 새로운 작품세계를 열었던 것이다.

〈베테이유〉 마을의 전경을 그린 이 작품은 모네가 베테이유에 살면서 제작한 작품으로서 물과 하늘이 이 작품의 주제다.



〈베테이유〉
1879년, 캔버스에 유채,
63*92,
네덜란드 트리튼 재단 소장

〈베테이유〉 이 작품에서 화면 중앙에 강이 흐르고 멀리 집들이 보인다. 하늘에는 구름들이 요동을 치고 있고 흐르는 강물에는 하늘과 마을 풍경이 맑게 비추고 있다. 물에 비추는 마을이 동화속의 풍경 같은 느낌을 주는 낭만적인 작품이다.

모네는 이 작품에서 멀리 종탑이 보이는 마을을 묘사했지만 사실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이 작품이 그려진 시기는 여름의 끝이나 초가을로 보인다.

클로드 모네(1840~1926)는 작업실에서 할 수 없는 자연의 에너지와 생동감을 주력해서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예술 세계를 찾았다.

모네는 초창기에 신화나 대형 인물화에 후한 점수를 주었던 공식 등용문인 살롱전에서의 성공을 꿈꿔 인물화에 몰두한다.

그 당시 인물화는 명예와 부를 가져다 줄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모네는 관습을 쫓는 화가는 아니었지만 선과 대담한 색상을 통해 살롱 전에서 확실하게 성공하고자 했다. 1866년 그의 아내가 된 까미유를 그린 작품 〈까미유〉로 성공을 했으나 곧 풍경과

따로 노는 듯한 그의 인물화는 실패를 한다.

대중들이나 비평가들에게 호응을 받지 못한 인물화에서 벗어난 모네는 빛의 끊임없는 변화에 따라 동일한 풍경이 달라지는 모습을 포착하고 끝없이 노력하고 탐구했다.

만년에 모네는 백내장으로 그림 그리는 것이 어려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베르니에서 변변치 못한 작품이 세상에 나갈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엄격하게 작업에 몰두했다.

클로드 모네(Claude Monet)

○출생-사망 : 1840. 11~1926. 12 (프랑스)

○경력 : 1893년 지베르니 수련 연못 조성

1874년 파리 화가, 조각가, 판화가,
무명예술가 협회전 개최

1865년 살롱에 바다풍경화 입선

1862년 C.글레르의 아틀리에